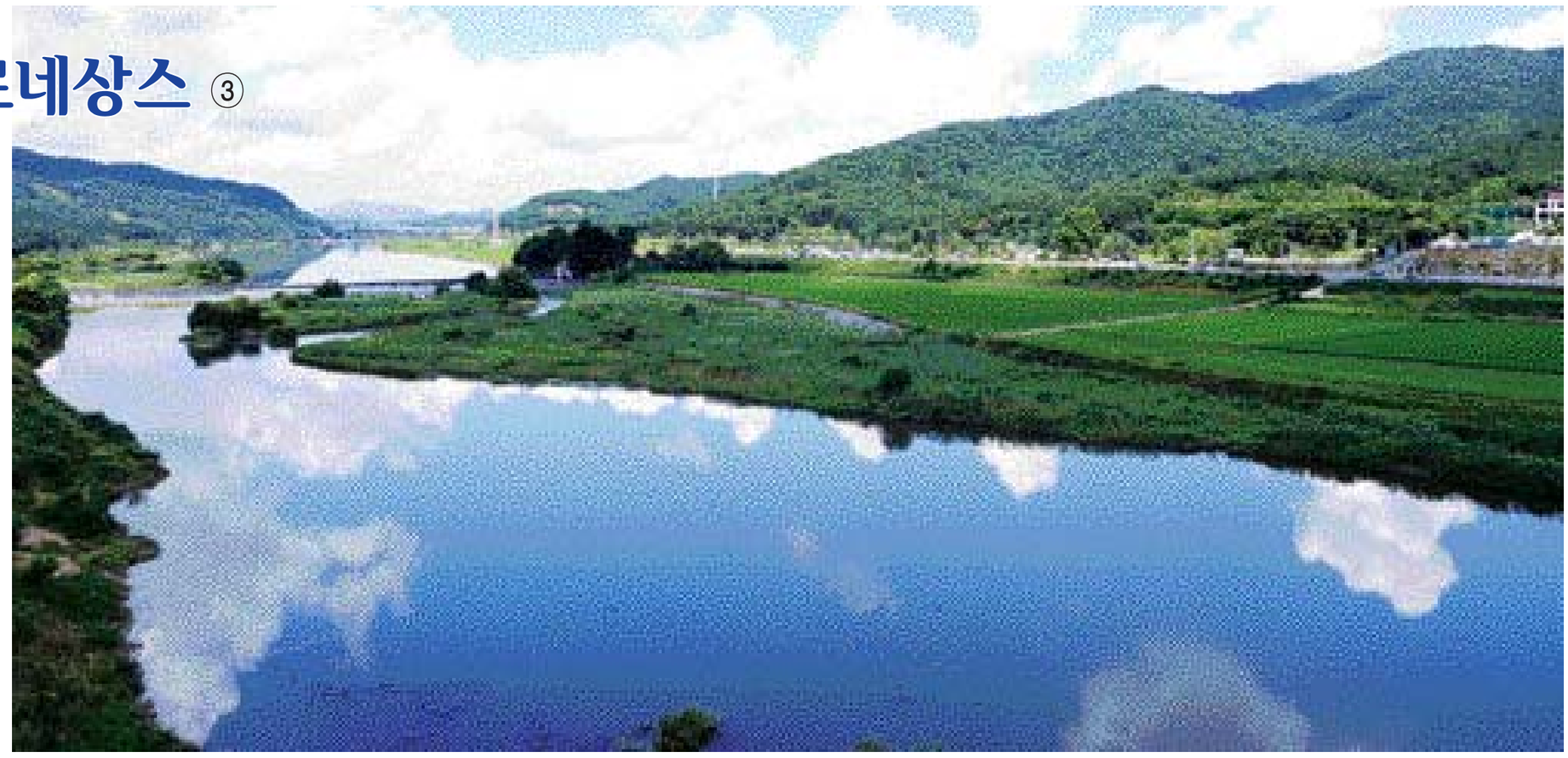
영산강 르네상스 ③



황룡강과 지석천·고막원천·함평천 등의 지류를 합하며 흐르는 남도의 젖줄 영산강이 지천과 샛강에 대한 환경정비시설 부족 등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맑은 초여름 하늘 아래 황룡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부〉 아름다운 강으로

❶ 빈약한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보급률 4대강 중 꼴찌…물관리 취약

농경지 많아 오염원 관리 힘들어

환경정비 투자 4대강 평균 절반

오랜 세월 남도 사람들과 함께해 온 영산강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점차 '생명'을 잃어갔다. 더 많은 농업용수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산강에 하구둑이 설치됐고, 이로 인해 남도 땅 350리 길을 굽이굽이 내달려왔던 물길은 하구에 막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뒤늦게 영산강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정부는 강 살리기를 위한 노력을 벌여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받아 온 영산강은 쉽사리 '생명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빈약한 하천유지 용수 때문에 한 번 망가진 영산강은 예전의 그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 물관리에 어려운 환경**=영산강은 평지형 하천으로, 하폭이 넓고 수심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유역 면적이 좁아 전국 4대 강과 비교해 규모와 유량이 적은 편이다. 특히 강우량의 연평균 변동 폭이 큼에 따라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차이도 커 하천유황도 매우 불안정하며, 4대 강 중 수자원 총량이 가장 적다.

하지만, 다른 유역에 비해 농경지 비율이 높아 농업용수 이용률이 42.7%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하천유지용수도 11%에 그치고 있어 물관리에 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영산강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도 45%로 전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수준이어서 하천 오염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뒤늦은 환경정비에 예산투자 '미흡'**=정부는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물관리 종합대책, 4대 강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뒤늦게 '물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중병'을 앓고 있는 영산강은 쉽사리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998년 이후 환경기초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영산강을 포함한 4대 강에 18조3천865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중 영산강 권역(섬진강 포함)에 투자된 금액은 전체의 15% 수준인 2조7천628억 원에 불과했다.

또한, 2001년~2005년까지 이뤄진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영산강 수계 투자실적도 계획대비 48.5%에 그쳐 전체 4대 강 수계 평균 투자율 82.4%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현재 영산강 유역에는 ▲주요 취·정수장 20개와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14개소 ▲분뇨 처리시설 8개소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6곳 ▲가축분뇨처리시설 4곳 등의 환경기초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본류 및 샛강 환경기초 시설 확충 미진**=시설별 투자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투자액의 90.9%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투입됐다. 반면, 하천정비사업과 녹조방지사업은 각각 1.4%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권역에서도 전체 사업비중에서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전체 계획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미진한 실정이다.

투자실적에 있어서도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전체 투자비의 85.6%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수처리사업의 투자실적은 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시급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1996년 이후 영산강 본류의 물이 상수원으로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다른 수계에 비해 환경개선 투자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동안 본류 위주의 수질개선대책으로 지방 2급 하천 이하의 샛강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나 실태조사도 미흡한 등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미진한 부분도 영산강을 죽음으로 내 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산강 환경관리청은 영산강 수계 중권역 물 환경관리계획(2007년~2011년)에 따라 1조2천720억 원의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1조977억 원, 수생태복원에 1천564억 원, 위해성 관리 15억 원, 비점오염원 관리 164억 원 등이 투자된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세부사항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16곳 ▲하수관거 787km ▲하수고도처리시설 6곳 ▲산업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각 1곳 ▲축산폐수 3곳 ▲마을하수도 186곳 등에 집중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별기고

조기안 초당대 환경공학과 교수

'영산강 살리기' 하천정비인가 대운하인가

우리 인류의 문명 발생은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이유는 70%가 물로 되어 있는 인간이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인구가 계속 팽창하고, 우리나라 경제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한강이란 커다란 수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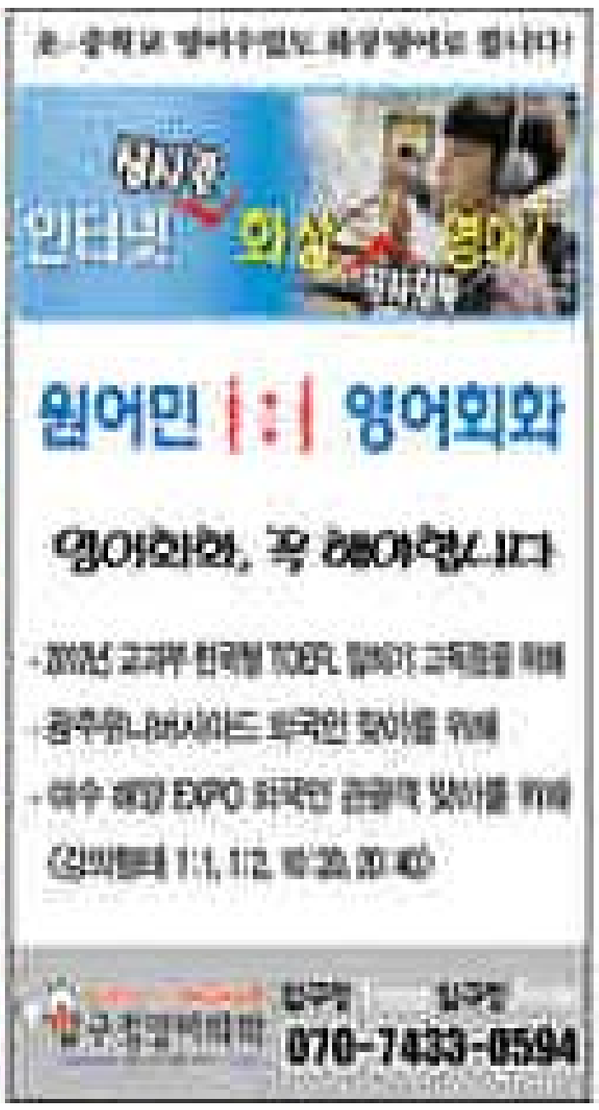
최근 우리는 하천정비인가, 대운하인가? 하는 뜨거운 논란 속에 과거부터 함께해온 영산강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거행하겠다고 한다. 어쩌면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특히 현재와 같이 신출귀몰(?)한 기후특성을 나타내 보일 때는 더욱 공감한다.

한 예로서 주암호의 경우를 보면, 현재 저수율은 약15%인데, 불과 2년전인 2007년에는 집중강우로 급방류를 시행하여 많은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인류는 현재 급변하는 지구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어떤 형태의 대책마련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영산강에 시행하려는 4대강 사업이 하천정비이고 수자원확보인지, 아니면 수질개선인지 이마저도 아니면 한국판 뉴딜정책인지 사업의 목표가 불투명하다.

그것은 사업의 주체인 국가가 정확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다. 다만 2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홍수가 재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하상을 낮추어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이고, 이때 수심이 깊어지면 과거처럼 배를 띄우겠다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역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치수를 하겠다는데, 웬 수중보는 2개나 건설하는 것인지, 옛부터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데, 황토 돗배를 왜 띄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영산강 유역 살고 있는 약 200만명이 먹을 물이 없어서 섬진강유역에서 물을 얻어먹고(?) 있다. 즉 물에 대해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향후 지역간 물 분쟁의 위험한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영산강 유역 주민들이 물에 대한 유역권과 수리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산강 물이 수자원으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5급수에서 최소한 2급수로 개선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이해당사자인 전남도가 4대강사업의 영산강 물이 생활용수인가 농업용수인가, 그리고 이수와 치수목표를 빨리 제시하여야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지원과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전라남도는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다. 영산강이 살아나지 않으면 전남의 경제도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앙정부도 시행에 있어서 강 본류에 대한 대책보다는 먼저 광주천과 같은 오염된 지방소하천에 대한 수질개선의 대책을 먼저 시행하고, 다음으로 하천본류에 대한 치수나 이수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한 절차 아닌가? 소하천에 대한 대책 없이 사업이 시행된 후, 본류가 다시 오염되면 광주전남은 물부족 현상이 고착화 함으로써 영원히 피해자로 남을수 밖에 없게된다.